

# 2016년 7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6.7.29(금) 14:00~15:30

## ■ 주요 회의 내용

### ▲ 언론의 역할과 심층성, 중립성 제고

- 연합뉴스티브이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나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음. 왜 교통사고가 났는지 고쳐야 할 점들과 교통문화를 잘 알려주면 좋을 것(이태식 위원장)
- 3일 일요일 아침 '출발 640' 스쿨폴리스, 위작감정, 청년수당, 오너리스크 등 굵직한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 등이 있어 좋았음. 이런 문제들이나 그 후에 대두된 여러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더 심도 깊은 보도와 좌담 등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음(김용직 위원)
- 29일 '1억이상' 수입 법인차 판매 25% 감소, 제조업 체감경기 여전히 부진 등 경기변동과 관련된 보도는 수치만 설명하면 어느정도 변동된 것인지 알기 어려움. 수입법인차 판매가 왜 감소했는지, 체감경기가 왜 여전히 부진한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줘야 의미있고 재미있는 방송이 될 것임(박동민 위원)
- 정치뉴스로 진경준- 넥슨 수사속보와 맞물려 우병우수석 관련보도가 큰 파장을 준 이달에, 원색적이거나 추측성보도는 지양되어 나오는듯한 보도 중립성이 보였음. 그러나 큰 이슈임에도 연합뉴스 자체의 취재는 없어서 정치적 뉴스에는 소극적으로 보임(박정숙 위원)

### ▲ 뉴스소재의 균형과 보도순위의 적절성

- 9시뉴스는 주로 사회면 뉴스가 많음. 사회면 뉴스에서는 어두운 면과 잔혹한 면이 많아 저녁뉴스를 보고난 후의 느낌은 우리사회의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무엇인가 답답한 마음이 듦. 지나치게 많은 사회면 뉴스를 중요도를 감안해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의 정제와 자막의 순화 등 신중한 보도가 필요해 보임(이태식 위원장)
- 뉴스의 기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해도 요즘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어두운 뉴스 일색이어서 안타까움. 연합뉴스TV가 선도적으로 밝은 뉴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음(김상선 위원)
- 3일 일요일 '성공다큐 정상에 서다'라 프로그램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성공한 기업 등을 방송해서 희망도 주고 기업에 격려도 하는 것은 좋아 보임. 그런데, 타 방송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니, 연합뉴스TV는 그야말로 정상에 있는 기

업을 다뤄 주었으면 좋겠음(김용직 위원)

- 뉴스가 정치, 특히 정당 뉴스를 중심으로 짜인다고 판단됨. 선거철이 아님에도 정치뉴스에만 편중되는 것은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해 보임. 특히 문화나 스포츠 등의 뉴스도 충분히 늘려서 풍부한 밥상이 됐으면 좋겠음(주철환 위원)
- 9시뉴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사고 및 성관련 뉴스가 우선순위로 나오는 느낌이 듦. 중요순위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이태식 위원장)

#### ▲ 화면구성, 자막, 부적절 표현 개선

- 28일 오후 김정일 배지발견 보도에서 화면에서는 인천경찰서 건물사진만 나오고 정작 문제가 된 김정일 배지는 나오지 않음. 화면처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청와대 관련 보도에서는 청와대 자료 화면에서 뉴스와 관계없는 청와대가 보이는 스카이웨이 사진이 나와 부자연스러웠음(이태식 위원장)
- 26일 라이브 투데이 프로그램 중 남녀 앵커와 기상 및 보건담당기자 등 4명이 함께 출연하는 코너에서 남녀 앵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카메라를 남녀 앵커에게만 Close-up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그렇지 않고 전체를 비출 경우 화면구성도 어색할 뿐 아니라 이때는 카메라를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두 분 기자의 불필요한 제스처까지 고스란히 화면에 잡힘(김상선 위원)
- 방송광고 중 화면 우 상단에 자각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형태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일부 채널 고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면 구성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광고주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됨(김상선 위원)
- 13일 오후 3시경 진행되는 이 시간 주요 뉴스에 하단 스크롤 중 “김 국방, 북핵 미사일 위협 있는 한 사드 배치 계속” 이란 자막이 3번이나 나옴. → “한 국방” 이던지, “김 안보실장” 이라고 해야 맞음. 자막 표기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신현택 부위원장)
- 26일 라이브 투데이 프로그램은 한중외교장관 회담, 일본 장애인시설 무차별 칼부림, 3당 전대 소식 등 주요 이슈를 우선순위에 따라 잘 다루고 있음. 다만, 대통령직속특별감찰관에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진을 관련뉴스를 전하는 내내 계속 화면에 띄어 있는데도, 뉴스초기에 이름을 소개하였지만, 설명자막이 없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갖게 한 점이 아쉬웠음(김상선 위원)
- 제목에 오렌지 색깔이 들어가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잘 이해할 수 있음. 하지만 가끔 띄어쓰기가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 제목이 전체 기사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맞춤법 등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여겨짐(주철환 위원)
- 갑질운행이라는 표현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사용해 주었으면 함(이태식 위원장)
- 6월 10일자 아침뉴스에서 우리나라 이산화질소 노출 180개국 국가 중 최하위

라고 자막이 나왔는데 나쁘다는 의미인지 좋다는 의미인지 명확치 않음(이태식 위원장)

- 여전히 방송용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가 많이 쓰임. 예를 들어 내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문어체임. 다음 달로 바꿔 쓸 수 있음. 방송이기 때문에 문어체를 쓰는데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됨(주철환 위원)
- 뉴스를 모니터하다가 "○○○ 피디입니다" 로 마치는 리포트를 몇 차례 접했음. 리포트는 기자가 하는 게 상식적이라서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로 느낄 것으로 생각함. 인력이 부족해 피디에게 리포트를 하도록 할 거면, 차라리 뒷부분 피디라는 타이틀을 없애고 이름만 얘기하는 게 나아보임(이재경 위원)
- 15일 '물 밖에서 익사?...물놀이 후 '마른익사 조심' 내용에서 '마른 익사'라는 표현이 섬뜩한 느낌을 줌. 물밖 호흡곤란 등으로 표현하였으면 좋겠음(박동민 위원)

#### ▲ 프로그램제작 및 리포트 관련 의견

- 세계 날씨' 코너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을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 날씨소식이 어떤 시청자 층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혹시 이 시간에 시청자들이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김상선 위원)
- 국제뉴스와 국내뉴스, 정치뉴스와 비정치뉴스, 인물관련 뉴스와 기타 뉴스, 중앙뉴스와 지방뉴스, 사건뉴스와 일반뉴스 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간 배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심층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음(김상선 위원)
- 21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사라졌어요'내용에서 취업준비생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편견 해소하는 유익한 뉴스임. 우수 중소기업 탐방 시리즈로 기획해도 좋겠음(박동민 위원)
- 암행순찰차 교통 집중 단속 결과 내용 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적발건수가 늘어났다는 취재 리포트가 마지막의 멘트로 적당한가 싶음. 시민의 교통법규 인식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멘트가 마지막으로 어울리지 않나 싶음(이태식 위원장)
- 방송리포터들의 발음에 해서 연습을 통한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의사의 허위진료 의견서에서 진료에 강조를 해서 발음하는 등 리포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이태식 위원장)

#### ▲ 기타 및 긍정적 의견

- 연합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시론을 연합뉴스TV에서 중요한 뉴스를 정리해서 전달해주면 좋을 것(이태식 위원장)
-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게시판 등에는 차마 들어가기 민망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글 등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뉴

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는 시청자들도 있으니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음  
(주철환 위원)

- 컴퓨터 그래픽의 수준이 심하게 표현해 조악한 경우가 많음. 지상파 3사는 물론 종편도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느껴짐. 그래픽이 너무 단순하고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음. 컴퓨터 그래픽이 전체적인 뉴스의 느낌을 달라보이게 하기 때문에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주철환 위원)
- 이번 달은 유난히 국제뉴스가 많은 달이었음. 미국 대선주자가 결정되는 주이며 프랑스파리테러와 유럽의 테러에 대한 대응이 많이 보도되었으며 라오스에서 개최된 외무장관회담 등이 가득했음. 이런 breaking news 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전달이 돋보였고 특히 항상 제기되어왔던 현장의 생생한 리포트가 훌륭했음(박정숙 위원)
- 긍정적으로 느꼈던 뉴스는 포토뉴스로서. 성주유림의 사드반대를 격렬한 소재이나 시위자인 유림주체의 뜻이 전해지도록 적절한 설명과 스틸화면이 오히려 상소문이라는 그들의 취지와 동영상보다 맞게 전달되어 감각적으로 표현되었음(박정숙 위원)
- 포토뉴스에서 63년 전 정전협정과 현재의 판문점을 오버랩하고 휴전중인 우리 현실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보여주면서 잘 설명해줌(박정숙 위원)
- . (끝)